



51년 만에 아시안컵 축구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조광래호가 26일 오후 인천공항을 출국하기 앞서 파이팅을 외치며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 주영 빈자리, 지성+젊은피로 채운다

**조광래호 아시안컵 대장정... 손흥민·지동원 숨은카드 51년만에 우승 도전**

51년 만에 아시안컵 축구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의 '박주영 부상 결장'이라는 악재를 떠안고 첫 전지훈련지인 아랍에미리트(UAE)로 떠났다. 조광래(56)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이날 비행기에 탑승한 태극 전사는 총 17명으로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청용(볼턴), 기성용, 차두리(이상 텔레) 등 해외과 6명

은 아부다비 현지로 직접 합류할 예정이다.

전력의 핵심인 박주영(AS모나코)이 무릎 부상으로 합류할 수 없게 돼 전력의 누수를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정신력과 박지성 시프트'를 앞세워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다.

조광래 감독은 출국에 앞서 "선수들 모두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했다. 정신력만으로 대회를 치를 수 없지만 정신 무장이 잘 돼 있으면 결과도 좋

게 나을 것이다"며 "박주영이 다치면서 전력 순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지성은 중앙의 2선으로 이동하고 유병수(인천)나 지동원(전남)에게 원톱 공격수를 맡기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영을 대신할 원톱 공격수 후보에 오른 지동원은 "다른 공격수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반드시 주영이 형의 빈자리를 메워 51년 만의 우승에 성공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출국한 대표팀은 오는 30일 시리아와 아부다비에서 평가전을 치르고 나서 내년 1월 4~5일 사이에 UAE 클럽팀과 한 차례 평가전을 더 치른 뒤 내년 1월 6일 아시안컵이 치러질 카타르 도하에 입성할 예정이다. 한편 스트라이커 박주영은 골 세리머니 과정에서 무릎을 다쳐 아시안컵 출전이 무산됐다.

박주영은 지난 23일 FC소속과 정규 리그 홈 경기에서 극적인 역전 결승골로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지만, 골 세리머니 과정에서 동료들에게 무릎이 놀리며 부상이 악화됐다.

## '축구산타' 강추위 녹였다

**홍명보재단 한파에도 1만5000관중 몰려**

**양준혁·지소연 등 스타들 사랑의 골잔치**

사랑과 희망을 나누려는 '축구 산타들'의 따뜻한 마음은 동장군도 막지 못했다. 홍명보장학재단(이사장 홍명보) 주최로 올해 8회째를 맞은 자선축구경기가 2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효성과 함께하는 세어 더 드림 끊불매치 2010'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졌다.

올해 경기는 홍명보 감독과 광저우 우시안개임 대표로 참가했던 선수를 주축으로 한 사랑팀과 최태욱(서울), 김형일(포항), 이천수(오미야), 고종수 등 은퇴선수로 구성된 희망팀의 대결로 전·후반 30분씩 치러졌다.

한국 여자축구의 희망 여민지(함안대산고)와 지소연(고베아이나)은 특별초청선수로 각각 사랑팀, 희망팀의 일원으로 출전했다. 정동준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겸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도 사랑팀 선수로 선발 출전해 12분간 뛰었다.

은퇴한 프로야구 스타 양준혁과 개그맨 서경석(이상 사랑팀), 이수근(희망팀)도 선수로 나와 자리를 빛냈다. 영하 10도 아래까지 내려가는 한파가 이어졌지만 1만5000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축구 산타들을 응원했다.

하프타임에는 '캐럴 대합창 세계 기네스 기록 도전' 행사도 펼쳐졌다. 참가선수와 관중이 한마음으로 '창밖을 보라'를 시작으로 캐럴 8곡을 15분 동안 끊이지 않고 불렀다.

이날 경기는 사랑팀과 희망팀이 사이좋게 세 골씩 터트려 3-3으로 비겼다. 전반전 희망팀은 이천수와 지소연, 고종

수가 차례로 골문을 열었고, 사랑팀은 양준혁과 여민지의 득점으로 희망팀을 쫓았다.

은퇴한 고종수(희망팀)는 2-2로 맞선 전반 24분 골 지역 왼쪽을 파고들어 차분하게 원발슛으로 골망을 출렁이는 등 녹슬지 않은 기량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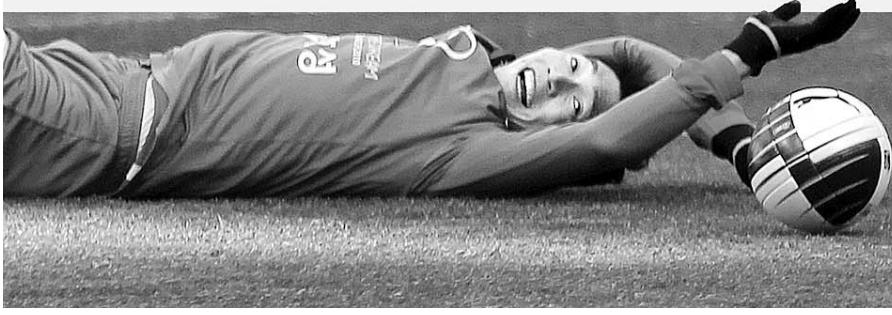
아시안개임 주전 수비수였던 사랑팀 오재석(수원)은 희망팀 주포 지소연을 그립같이 따라다니며 밀착수비를 펼쳐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한국을 대표하는 자선 스포츠 행사로 자리매김한 홍명보 자선축구경기의 수익금은 소아암 어린이와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마포구 성산동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홍명보 장학재단 주최로 열린 '효성과 함께하는 세어 더 드림 끊불매치 2010'에서 사랑팀의 여민지가 희망팀의 김형일을 피해 슛을 날릴 기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부상복귀 김연경 31점 '스파이크쇼'

감기와 과로를 털치고 돌아온 거포 김연경(22·JT 마블러스)이 맹공격을 펼치고 팀 승리에 앞장섰다.

김연경은 26일 일본 가나와현 후지자와시 아기바다이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일본여자프로배구 도요타 키시스와 경기에서 공격득점으로 30점, 블로킹으로 1점 등 총 31점을 몰아 때려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스파이크 공격성공률은 65.2%에 달했고 후위 공격으로도 2점을 올렸



다. 26차례 서브를 받아 16번을 정확히 세트에게 토스, 서브 리시브율도 61.5%에 달해 컨디션은 완전히 회복음을 알렸다.

광저우 아시안개임에서 혼신의 힘을 쓴 덕에 과로와 감기 몸살이 겹쳐 병원에 누웠던 김연경은 지난 11~12일 경기를 뛰지 못했고 25일

히사미쓰와 경기에 교체 선수로 나와 커디션을 조율했다.

2세트와 3세트에 교체 선수로 나와 스파이크로 6점, 서브로 1점을 올리며 실전 적응을 마친 김연경은 이날은 4세트를 모두 뛰며 JT 주포답게 화끈한 공격으로 도요타의 코트를 맴겼다.

5승3패를 거둔 JT는 리그 3위로 뛰어올라 선두 도레이(6승1패) 추격에 나섰다.

/연합뉴스

## 현대, 우승후보 답게 '화력시범'

**후인정 펼쳐... LIG 3대0 완파 V리그 남자부 1R 2위로 마감**

'우승후보' 현대캐피탈이 신나는 4연승을 달리고 1라운드를 2위로 마쳤다.

현대캐피탈은 26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0-2011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방문경기에서 블로킹의 절대 우세(13-3)를 발휘 삼아 LIG손해보험을 3-0으로 완파했다. 36살 베테랑 후인정이 가로막기로만 7점을 올리는 등

13점을 퍼붓고 펼칠 날았다.

현대캐피탈은 삼성화재와 대한항공에 잇달아 패해 출발이 좋지 않았지만 이후 내리 4연승을 거둬 4승2패로 6전 전승을 달린 대한항공에 이어 2위로 1라운드를 마감했다.

나란히 3연승을 달리던 양팀의 승부는 예상과 달리 높이와 과감한 중앙 공격을 앞세운 현대캐피탈 쪽으로 일찌감치 기울었다.

1세트에서 후인정이 가로막기 3점 을 올리는 등 블로킹에서 4-1로 앞선 현대캐피탈은 LIG손보의 압점인 센터진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여유 있게 경기를 풀어갔다.

2세트 시작과 함께 후인정이 두 번이나 김요한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현대캐피탈은 4-0으로 달아났다. 현대캐피탈은 최태웅의 영리한 토스를 바탕으로 21-11로 점수를 벌려 승기를

잡았다.

3세트에서도 현대캐피탈은 윤봉우, 소토의 공격과 후인정, 이선규의 가로막기로 5-1로 도망이며 사실상 경기를 끝냈다.

현대캐피탈은 신인 드래프트 거부로 1라운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문성민이 27일부터 시작할 2라운드에 가세하면서 공격진의 파괴력이 한층 더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T.010-8000-1656

1월 9일(일)

▲요산회 시사제 산행(무등산 누에봉 :

12시 시사제) 1월9일(일) 무등산장 9시

출발 \*다음카페 : 요산회

T.010-5152-2629, 010-3788-6600

▲광주힐라산악회 해남 달마산 1월9일

(일) 7시20분 진월동 구해태마트 출발(7

시30분 염주체육관주차장 / 7시35분 훨

라매장 / 7시40분 한국병원 / 7시50분 문

예후문 / 8시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다

음카페 : 광주힐라산악회

T.011-629-2678, 062-374-0555

1월 10일(월)

▲광주산행스케치 제주도 한라산 눈꽃

특별산행과 올레길 섬세 아트랜드 평화

센터 1월10일 ~ 11일(월~화) 6시30분 염주체육관출발(6 : 40동아병원, 6 : 50 광주역, 7 : 00 문예후문) \*다음카페 : 광주산행스케치 T.011-634-0776

1월 13일(목)

▲광주한국산악회 강원도 평창 계방산 1

월 13일(목) 5시 출발 염주체육관출발

(선착순예약) \*다음카페 광주한국산악회(\*우리산악회는 음주가무를 하지 않습니다) T.011-615-2279

1월 15일(토)

▲광주한빛산악회 제주도(1호차 : 성산

동굴출, 2호차 : 제주시내 관광) 1월15

일 ~ 16일(토~일) A코스 : 성판악-백록담-관음사 B코스 : 성판악-사라오름-성판악-관음사 C코스 : 성판악-시내관광-관음사 자세한사항은 카페참조 \*다음카페 : 광주한빛산악회 T.010-3131-3580

▲광주진주봉토요산악회 국립공원 덕유산 눈꽃산행 1월15일(토) 7시 진월동 구해태마트 출발(7시10분 염주체육관 / 7시20분 교원공제회관앞 / 7시25분 문예예

관 출발(7시20분 문예예술회관후문 경유) \*다음카페 : 광주진주봉토요산악회 T.010-4598-9144, 011-9147-7847

봉토요산악회

T.011-627-2113, 010-5038-9001

1월 16일(일)

▲빛고을무지개산악회 남해 호구산 1월

16일(일) 7시 지하철화동-중심사 입구역

(소공원) 3번출구 출발, 7시20분 광주역

7시30분 문예회관후문, 7시40분 동광주

웨딩프라자) \*다음카페 : 빛고을무지개

산악회 T.011-620-2002

1월 13일(목)

▲광주한국산악회 강원도 평창 계방산 1

월 13일(목) 5시 출발 염주체육관출발

(선착순예약) \*다음카페 광주한국산악회(\*우리산악회는 음주가무를 하지 않습니다) T.011-615-2279

1월 22일(토)

▲광주참살이산우회 제주도 한라산(사라

오름), 성산일출봉행 A코스 : 성판악-

백록담-관음사, B코스 : 성판악-사라오

름-성판악-관음사 C코스 : 성판악-시내관광-

관음사 자세한사항은 카페참조 \*다음

카페 : 광주한빛산악회 T.011-615-2279

1월 23일(일)

▲광주한국산악회 강원도 평창 계방산 1

월 23일(일) 5시 출발 염주체육관출발